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73-5254 (사무실) 77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사순절 제3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꽃샘추위를 견뎌낸 여린 새싹들이 따스한 햇살을 온 몸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은택을 입혀주십니다. 하지만 성급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며 살 때가 많습니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산을 깎아 물길을 막기도 합니다. 이 봄에 수많은 생명들의 울음소리가 우리의 귓전에 들려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깊이 자각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머물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1:3	인도자
♠ 교 독 문	16. 시편 63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한지혜 선생 II. 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427. 내가 매일 기쁘게	다함께
성경봉독	I. 마4:1-4	인도자
	II. 막9:33-41	박홍재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돌은 돌이다	김재흥 목사
	II. 패거리주의를 넘어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같이	

헌신의 찬송	272. 인류는 하나 되게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높아지려는 열망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섬기는 이에게 허락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 세상만물을 살리는 물처럼, 아픔과 슬픔이 곳에 머물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욕으로 편협해질 때마다 하늘의 빛으로 우리를 환히 밝혀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활동	에베소서 강해(34)/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 자매의 사귄!	기도 : 권미정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곽권희 집사 조병무 장로	인도자 박범희 집사

3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준호 고광송 곽혜자 장혜숙 이춘희
	헌금위원	한완식 박창운 안길상 조병주 최숙화 백혜숙

네 사랑을 나에게 전부 다오

어젯밤 TV에서 빌 모이어스와 조셉 캠벨의 대화를 보았다. 80년대 제작된 연작 프로의 재방송이었다.

영적으로 바로 사는 것이 곧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캠벨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또는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돕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내면에 평화가 있는가?”이다. 목상과 행동의 불일치가 사람을 오도할 수 있다는 내 믿음이 캠벨을 통해 더욱 확인되었다.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내면의 교제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그분의 임재가 곧 치유였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었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다! “[예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막6:56).

아침 성찬식 때 우리는 지상명령에 대해 얘기했다. 동일한 주제였다. 마음과 생각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과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깊은 자아와는 물론 이웃과 창의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릴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인간들도 하나님의 아들딸들이요 우리와 한 가족임을 보게 된다. 자신이 사랑 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누리며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이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께 사랑을 얼마나 바칠 것인가? 이웃에게는 얼마나,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네 사랑을 나에게 전부 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 이웃과 너 자신을 주겠다.”

지금 우리는 도덕적 의무나 윤리적 강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신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다.

탓하는 자세를 버리고

날 때부터 소경 된 자의 비극이 뉘 죄로 인한 것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답하셨다. “[저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요9:3).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비극을 볼 때마다 누구 탓인지 따지느라 골몰한다. 부모 탓인가? 내 탓인가? 이민자들 탓인가? 유대인들 탓인가? 게이들 탓인가? 흑인들 탓인가? 근본주의자들 탓인가? 천주교인들 탓인가? 자기를 포함해 누군가 손가락질할 대상을 찾을 때 우리는 묘한 만족을 느낀다. 의문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다소나마 감이 잡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그렇게 탓하는 자세로 푸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분별해내는 것,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이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가장 비참한 사건까지도—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탓하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쪽으로 나아갈 각오만 돼있다면 나의 삶은 근본부터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삶의 외양과는 별 상관없이 없다고 생각한다. 비극이란 누구에게나 있다. 죽음, 우울, 배반, 거부, 가난, 분리, 상실 등 끝이 없다. 사건 자체는 대개 우리로서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반응을 택하며 사는가? 책임 공방에 급급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목도할 기회로 삼는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비극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 비극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장으로 받아들이고 되새길 때 그 이야기는 성스러운 역사가 된다.

오늘 아버지와 통화했다. 아버지에게 물었다. “네덜란드 신문에 매일 실리는 제 칼럼이 어떻던가요? 아버지는 잠시 땀을 흘리다 조심스레 말했다. ”글쎄, 좀 나은 것들도 있긴 하더라도...칼럼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고등학교 때 내 성적표에 대해 보이시던 반응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의 성격인 줄 알면서도 약간 상처가 되었다. 그래서 네덜란드 한 친구에게 전화했다. 그 친구는 내가 듣고 싶어한 대답을 들려주었다. “아주 좋습니다.”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내 마음은 참 이상하다. 말로는 사실을 듣고 싶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늘 칭찬을 바라고 있다니! 아버지 말이 맞다. 좀 나은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다.

-헨리 나우웬, <<안식의 여정>> 중에서

■ 마/음/으/로/워/는/글

매일 저녁

매일 저녁 너는 너의 하루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날 하루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그날 하루의 행동이나 신의가 흡족했는지,

불안과 후회 속에서 절망하지는 않았는지,

너의 사랑의 이름들을 전부 불러보고,

미움과 과실을 가만히 고백해야 한다.

모든 나쁜 것을 속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떤 그늘도 침대 속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모든 걱정을 영혼에서 털어내어

그것들을 멀리서 어린애처럼 쉬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깨끗해진 너의 가슴속에서 자신 있게

네게 가장 사랑스러운 것을 회상해야 한다.

이를테면 너의 어머니와 너의 어린 시절을.

보라, 이제 너는 순수해져, 시원한 잠의 샘물을

한잔 깊이 들이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황금빛 꿈들이 다정히 손짓하고

해맑은 정신으로 새로운 날을

영웅처럼, 승리자처럼 시작하는 샘물을.

-헤르만 헤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찬양대장 : 한상의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춘려 박홍엽 임창선 박시내 김지윤 김지호 이인웅
임고운 오자영 최미선

월정헌금:

이지훈 최윤희 정두리 김미순 이정은 고숙이 이갑재 김남홍 이은자

감사헌금:

김훈동 유경순 강효신 하재두 박병구 백혜성 무명1

생일감사헌금: 오승경 백혜성 이운화 박혜경 윤수진 이지훈

구도헌금: 문복순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정두리	김정섭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박홍엽	김미순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이재문	문인옥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이봉배	김명순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조병주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곽권희	백묘현
시온	박효선	허정윤	김현주	박효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이갑재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강순배	김금순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안길상	최종원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오현정	구명자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최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김혜권	박옥식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윤정화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임창선	조향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동호회** : 오후 2시부터 동호회로 모입니다. 좋은 사귄과 배움의 시간을 통해 함께 삶을 경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교사대학** : 오후 12시50분부터 중고등부실에서 3월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교회학교교사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세례입교교육** : 1시부터 교회사무실에서 세례입교교육이 있습니다. 19일-세례교육, 26일-입교교육, 4월 2일-유아세례교육
5. **아름다운 원로 모임** : 오는 수요일(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모입니다.
6. **특별새벽기도회** : 3월 27일부터 부활절 새벽까지 3주 동안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고요한 새벽 시간을 구별해서 삶의 중심을 되찾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7. **신앙실천** : 생태적 감수성을 회복해야 우리 삶이 새로워집니다.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기쁨을 맛보십시오. 화분을 새로 장만하거나 이미 있는 것들을 잘 보살피면서 생명 목상을 하십시오.

* 식당 봉사 : 시온 속

* 헌화 : 김근중 권사 (감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